

개성심리학의 발생과 변천

림 현 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은 성격과 취미, 준비정도가 서로 다르며 맡고있는 혁명임무도 각이한것만큼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식으로 하여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320페이지)

개성심리학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개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과이다.

개성심리학은 각이한 형태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다.

개성심리학의 시초적형태는 고대그리스에서 발생한 인간의 성격, 기질에 대한 견해이다.

고대그리스에서는 철학적사고가 일찍부터 발달하였으며 고대철학에서는 주로 세계의 시원문제가 위주로 논의되었다. 세계가 물질적인 시원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본 유물론철학자들은 사람의 육체와 생명현상도 물질적기초우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유물론적인 관점을 받아들여 사람의 기질, 성격과 행동방식도 물질적인것에 기초하여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고대시기 인간의 개성적특성에 대한 견해로서 대표적인것은 히포크라테스(B.C.460—B.C.377, 고대그리스의 의사이며 철학자)의 기질론(성격론)이다.

그는 오랜 기간의 의학연구와 치료활동, 교원생활과정에 특히 의술을 체계화하면서 그 기초인 사람들의 성격과 체질상특성을 중요시하고 구분하였다. 그는 성격, 기질을 구분하면서 세계의 시원과 관련하여 다원소설을 주장한 그리스의 유물론철학자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기초로 삼았다. 엠페도클레스(B.C.483—B.C.435)는 세계를 이루는 근원을 하나로 본것은 단순히 견해라고 하면서 다양한 세상만물의 시원은 응당 다양한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 여러 학자들이 제각각 주장하던 시원물질들을 모두 합쳐 물, 불, 공기, 흙의 4가지가 동시에 세계의 시원으로 되며 우주의 시원으로 되는 매개 요소들은 자기의 특징, 고유한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공기는 덥고 따뜻하며 흙은 차고 건조하다. 불은 따뜻하고 건조하며 물은 차고 습하다. 이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하늘과 땅을 이루고 산과 강을 이루었으며 자연과 인간세상을 이루었다.

엠페도클레스가 내놓은 4원소설은 그대로 히포크라테스의 《체액설》로 이어졌다.

히포크라테스는 자기와 비슷한 시기에 생존하던 엠페도클레스의 견해에 공감하고 사람의 성격, 기질은 이 4개의 시원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의 기질유형을 나누었다.

그에 의하면 공기의 성질에 대응한 체액은 혈액이다. 그것은 혈액이 가장 활발하고 가벼운 액체이기때문이다. 혈액이 많은 사람을 다혈질이라고 한다. 이런 류형의 사람은

다변가이고 사물을 쉽게 받아들이며 뽕뽕하고 무책임하다. 행동의 속도는 빠르고 활달하며 정서가 충만되고 낙천적이다.

흙에 대응한 체액은 흑담즙(히포크라테스가 가정한 체액으로서 과학적인 기초는 없다.)이다. 흑담즙이 많은 사람을 흑담즙질 또는 우울질이라고 한다. 흙은 차고 건조하고 기운이 소통되지 않으므로 매우 어둡고 침침한 성질을 띤다. 흑담즙질은 느낌이 뜨고 항상 서서히 높아지고 낮아지곤 하며 느낌속도는 느리나 강도는 세다. 비관적인 특성이 강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 쉬우며 억압적이다.

불에 대응하는 체액은 황담즙이며 황담즙이 많은 사람을 담즙질이라고 하였다. 담즙질은 불과 같이 열광적인 특성을 띤다. 느낌이 강하고 반응은 빠르다. 언제나 걱정적이고 책임감은 강하다. 사소한 일에서도 분노하기 쉽고 행동은 충동적이다.

물에 대응하는 체액은 점액이며 점액이 많은 사람을 점액질이라고 하였다. 점액질은 느낌도 동작도 뜨고 모든 행동이 둔중하며 활발하지 못하고 비가동적이다. 매사에 무관심하며 단순하다. 점착성이 강하며 타성에 빠지기 잘한다.

히포크라테스의 기질설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은 우선 인간의 성격을 물질적인 것에 기초한것으로 본 유물론적견해라는것이다. 당시 사람들의 성격과 모든 활동이 초자연적인 《명혼》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는 관념론적견해가 지배하던 조건에서 이것은 진보적인 측면이었다.

긍정적인 측면은 또한 그가 처음으로 인간의 공고한 기질, 성격의 다양성을 밝히고 그것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분류하려고 시도한것이다. 그는 현실에 대한 유물론적관점과 자기의 의확실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질적특징을 지니면서도 거기에 일련의 공통성, 유형이 있다는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밝히었던것이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의 《체액설》은 체계성과 과학성이 결여되고 시대적제한성을 띤 소박한 견해였다. 그의 견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과학적인 기초가 없이 단편적인 리론과 경험의 범위에서 주어진 직관적이며 형이상학적견해였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의 원천을 세계의 시원과 동일시한것이라든가, 성격, 기질의 분류와 해석에서 주관적이고 허황한 내용들이 담겨져있는것, 또한 기질, 성격을 유기체의 생물학적속성으로, 고정불변한것으로 봄으로써 숙명론을 고취한것 등에서 볼수 있다. 그러나 그가 성격유형을 분류한것은 이후 심리학발전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었다.

중세에는 종교의 억압과 전횡으로 하여 학문적진보가 극도로 억제되었으며 인간의 개성적특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개성적특성에 대한 연구는 근세에 들어와 자본주의적산업의 발전과 교육, 보건 등의 요구로부터 제기되었다.

근세에 들어와 산업의 발전과 교육과 같은 사회적실천은 사람들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특히 지적인 면에서 구별하고 그에 맞게 활동을 할수 있는 징표들을 밝힐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이것은 개성심리학이 발생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근세에 자연과학이 발전하여 사람들이 지니는 능력의 수준과 특징을 규정할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설정되고 그것이 정량적방법과 결합됨으로써 매 사람의 개인적차이를 파악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성심리학이 발생할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었다.

근세초기 개성심리학적연구의 대상은 매 사람의 개인적차이 혹은 어떤 징표에 따라

결합된 집단들사이의 차이였다.

개성심리학적연구의 첫 시도라고 볼수 있는것은 《반응시간의 개인차연구》였다.

영국의 그리니치천문대에서 18세기말에 천문학자인 마스크라인은 자기의 조수와 함께 선박용항해시계를 망원경의 접안렌즈에 놓인 머리카락을 어떤 별이 통과하는 시간에 맞추어 교정하고있었다. 그런데 조수인 킨네브룩크는 마스크라인보다 0.8s 느리게 별의 통과를 보고하였다. 천문학자는 이 차이를 조수가 태만한데 있다고 보고 그를 해고하였다.

그러나 도이칠란드의 천문학자 베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사이의 값이 차이나는 것은 단순한 오차이거나 태만이 아니라 아마도 자연적인 개인차에 의한것일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별의 통과시간계측을 자신과 동료 그리고 다른 천문대의 사람들과 비교할것을 시도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개인방정식》이라는것을 작성하였는데 자기자신의 값을 다른 학자의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어떤 천문학자의 보고시간에 정수(개인상수)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즉 어떤 학자에 의하여 보고된 시간(tm)은 간단한 식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값(tk)으로 변환할수 있다.

우의 실례를 든다면 $tk=tm+0.8s$ 이다. 반응시간의 측정 또는 정신시간측정은 이 개인 방정식으로부터 나온것이다.

이후부터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개성심리적특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나서게 되었다.

개성심리학적연구는 근세 도이칠란드와 프랑스, 영국 등에서 시작되었으며 초기대표자들을 보면 크레펠린, 게젤, 비네, 라즈루스끼, 슈테른, 골튼 등이다.

개성심리학은 심리학이 독자적인 과학으로 형성되고있던 19세기 80년대에 도이칠란드에서 실험심리학의 창시자인 분트의 학설체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새로운 심리학분야의 연구를 지향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분트학파가 관심을 돌리지 못한 사람들의 개인적특성연구에 실험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개성심리학에 대한 연구는 처음에 그 내용에 대한 똑똑한 견해와 기준이 없이 인간 정신의 개인적차이일반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도이칠란드의 심리학자인 에밀 크레펠린(1856—1926)은 사람들의 정신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정신병의 발병과 치료에서의 개인적특성을 발견하고 개성에 대한 실험심리학적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는 각이한 정신병들을 연구하면서 단순히 병상태를 서술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처음부터 정신질환의 계통적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신경 학자들과 협력하여 각이한 기억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실험적연구를 진행하고 자기의 정신병원실험자료와 뇌수의 기능국재에 대한 학설에 의거하여 사람들의 지각 및 기억형을 시각형, 청각형, 운동형으로 나누었다.

1897년에는 로씨야의 심리학자인 라즈루스끼에 의해 《개성심리학의 현대적인 상황》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개성심리학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성과들을 개괄하고 각이한 사람들에게서 정신적인 속성이 어떻게 변형되며 그것들이 결합되어 어떤 류형들을 마련하는가를 해명하려 하였다.

심리학이 독자적인 과학으로 형성된 19세기말에 성격을 비롯한 인간의 개성심리적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것은 심리학의 주요한 경향의 하나였다.

도이칠란드의 의학심리학자인 에른스트 크레츄머(1888—1964)는 주로 성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의학적심리학》(1922)을 비롯한 여러 저서들에서 성격의 유형분류에 대한 이론을 내놓았다. 그의 성격이론을 한마디로 《체격설》이라고 한다. 그는 사람들을 명백히 구별되는 체격류형들로 분류하고 그에 의하여 기질, 성격을 해석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중요한것은 사람들의 성격, 기질이 근육, 골격계통과 체형과 같은 체격, 체질상특성에 따른다고 보고 그의 특징을 상세히 밝힌것이다.

크레츠퍼트는 근육과 골격, 체형을 비롯한 유기체의 구조적특징이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 기질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의 체격을 크게 3가지 즉 근골형(투사형), 비만형, 수장형 등으로 나누고 여기에 각각 점착성기질성격, 순환성기질성격, 분열성기질성격을 대치시켰다. 그리고 각 류형들의 특징을 상세히 전개하였다.

크레츠퍼트의 성격이론의 제한성은 우선 사람들의 성격을 생물학적인것, 자연적인것에 귀착시킴으로써 사상정신적특징을 기본으로 하는 성격의 본질을 외곡하고있는것이다.

성격은 매 사람에게 공고하게 굳어진 사상정신적특징과 그의 개성적표현이며 여기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사상정신적특징인것이다.

크레츠퍼트의 성격이론의 제한성은 또한 성격의 형성발전을 부인하고있는것이다.

그는 성격이 전적으로 육체적구조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봄으로써 사람들의 생활과정에 이루어지는 특성인 성격을 고정불변한것으로 간주하였다.

근세에 영국에서도 인간의 개성에 대한 심리학적인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조류가 제기되었다. 하나는 당시 지배적인 경향이었던 실험심리학적립장에서서 개성심리에 대하여서도 실험적연구와 수학적인 방법을 도입하는것이였다.

그 대표자는 영국의 심리학자인 프란시스 골튼과 수학자인 피어슨이였다.

심리학분야에서 이들이 시도한것은 한마디로 인간심리의 개인적특성연구에 새로운 연구방법인 통계적방법을 새롭게 도입하려고 한것이다. 그들은 쌍둥이, 천재에 대한 유전적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인간의 선천적능력의 우열을 이론적으로 근거짓는다는 우생학을 제창하였다.

골튼은 외부환경의 자극과 유전성사이의 호상관계를 해명하여 인간의 개성을 특징지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통계학을 자기의 중요한 연구수단으로 리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능뿐아니라 모든 심리적차이를 유전성에 귀착시켰고 교육의 영향은 재능발전에서 큰 역할을 놀지 못하며 지어 부정적인 역할을 논다고까지 주장하였다.

그는 그후 1884년에 90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체측정실험(키, 몸무게, 감수성, 반응시간...)을 진행하고 자기의 실험결과들을 분석하였는데 역시 모든 개인적차이의 원인을 유전성에 귀착시키고있다.

골튼이 개성심리연구에 도입한 통계적수법, 가변적인것들사이의 상관관계와 그 결수(상수)에 대한 산출방법은 경제적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한 문제해결에 심리학의 성과를 악용하려는 부르조아지의 리윤추구에 리용되었다.

근세 영국의 개성심리이론에서 다른 하나의 경향은 근세경험론철학에 기초한 환경론의 영향밑에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과 그의 형성요인문제를 밝히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려 한것이였다.

여기에서 오우인의 성격형성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영국의 교육가인 로버트

오우인(1771-1858)은 환경중심의 성격형성론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문제를 론의하는 과정에 성격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의 견해는 한마디로 환경만능의 성격형성론이다. 즉 사람의 성격형성에서의 정신적, 물질적환경작용의 중시와 환경개선에 의한 성격개조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그의 기본 견해로 되고있다. 그의 환경론은 프랑스의 계몽사상가들과 기계적유물론자들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것이였다.

그는 기업경영에 종사하면서 노동자들의 정신적타락이 주로 그를 둘러싼 좋지 못한 환경에 기인된다는것을 목격하였으며 이로부터 인간은 모두 환경의 산물이고 환경이 성격형성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오우인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에서 선천적인 소질과 개인적지향, 의지도 일정한 의의를 가지지만 그보다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크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것이 교육이다.

특히 그는 유년기의 성격은 가변성을 띤다는것을 확신하고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그가 태어날 때의 인간정신은 백지상태에 있다는 록크의 《백지설》을 따라 가장 유연한 유아기의 교육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으며 좋은 성격을 형성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각 개인의 합리적인 성격과 습성형성을 목적으로 한 《성격형성학교》를 자기의 공장지구에 설치하여 개방된 공공교육을 실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견해에 기초한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그의 특성에 맞게 교육하고 개조하기 위한데 목적을 둔것도 아니였다. 그가 리상한 좋고 합리적인 성격이란 편견에 포로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고하며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할수 있는 성격을 말하는것으로서 본질상 자본주의적생산에 종사할수 있는 지적, 정신적능력과 리타적인 부르조아인도주의적관점에 선 도덕품성을 다같이 겸비한것을 념두에 둔것이였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실현될수 없는 공상에 불과한것이였다. 그는 자기의 공상적사회주의학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격과 그 형성문제에서도 공상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의 성격형성론은 실천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다.

개성심리학은 일련의 연구성과들에 토대하여 19세기말~20세기초에 심리학의 한 분과로 나왔다.

1900년에 도이칠란드의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칼 슈테른(1871-1938)에 의하여 《개성심리학에 대하여》라는 책이 나왔고 이때부터 개성심리학이라는 용어가 공인되게 되였다.

칼 슈테른은 심리학에 대한 다방면적인 연구를 하였는데 특히 아동심리학, 교육심리학에서 대표자의 한사람으로 되고있다. 그는 아동들의 언어, 지능검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정신측정에 지능지수를 리용할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개성심리학이라는 학문의 대상을 개인의 개성적측면에 대한 분석으로 제한시켰다.

그리하여 개성심리학적리론의 초기대표자들에 의해 분트의 실험심리학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게 되였다. 과학적심리학의 창시자인 분트는 주로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현상 그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심리현상의 궁극적기초를 이루는 근본요소를 찾는것을 심리학의 주요과업으로 삼았기때문에 심리의 개인적차이문제는 전면에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심리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심리현상, 심리적특성에서의 개인적차이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게 되였으며 개성심리학적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성심리학적연구는 점차 부르조아지들의 탐욕과 자본주의적착취에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부르조아지의 비위에 맞게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인 이론으로 개악되어 자본가계급에게 복무하는 반동적인 사회정치적견해에 합류되었다.

당시 자본주의나라들의 심리학에서는 심리검사와 통계적수법을 리용하여 사람들사이의 능력의 개인적차이를 확정하려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산업부르조아지들의 요구와 관련되어있었다.

미국의 실험심리학자인 제젤은 개인적차이문제를 소홀히 하는 분트를 비판하면서 사람들의 개인심리적속성을 규정하고 그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심리검사방법을 제창하였다.(그는 이것을 지적인 검사 혹은 정신적인 두뇌검사로 불렀다.)

그는 1890년에 영국의 프란시스 골톤이 발행하는 《마인드》(정신)라는 잡지에 《지적인 검사와 측정》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심리학이 실험과 측정에 기초해야 물리학과 같이 공고하고 정확한것으로 될수 있는데 이것은 많은 개별적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실현될수 있으며 이 결과들은 심리적과정과 그것들의 호상의존성, 각이한 환경에서의 불변성을 해명하는데서 충분한 가치를 가질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재능있는 사람의 선발에서 《유전결정론》을 제창한 골톤과는 달리 지능검사론이 실천적인 가치를 충분히 가지게 될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감수성, 반응시간, 색 등 50가지의 검사견본을 제기하였으며 1891년부터 심리검사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형이상학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한것이였다.

20세기초 서유럽의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부르조아지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산업, 교육분야에 실천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인간의 개성심리적특성에 대한 연구에 주의가 돌려졌다.

이 시기 유럽에서 개성심리에 대한 연구의 대표자들로서는 비네, 에빙하우스, 슈테른, 뮌스터베르그, 쏘다이크, 몰러 등이였다.

사람들의 인격과 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인 지능수준을 수량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검사는 1905년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비네에 의하여 처음으로 진행되였다.

지능검사의 시초로 된것이 1905년의 《비네-씨몬식지능검사》였다.

비네(1857-1911)는 아동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목적밑에 지능을 검사하는 수법을 착상하였다. 그는 아동들의 지능저하여부를 검사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뢰를 받고 의사인 씨몬과 함께 처음으로 지능검사표를 만들어내놓았다.

그는 쉬운것으로부터 어려운 순서로 배열된 30개의 문제계렬을 가지고 지능검사를 진행하였으며 1908년에 이어 1911년에 이것을 더욱 개정하였다. 이것은 3살부터 10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 나이에 따라 몇개의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그는 지능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정신나이와 생활나이의 비로 나타낸 지능지수를 가지고 지능을 평가하려 하였다. 여기서 그가 적용한 식은 $IQ = (MA / CA) \times 100$ 이였다.(IQ: 지능지수, MA: 정신나이, CA: 생활나이)

그는 정상아동들속에서 지적능력이 뜨거나 미약한 아동을 식별하고 우수한 아동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천재, 최우수, 보통, 경계아동, 저능아동과 같은 개념을 설정하였다. 그가 제기한 질문은 매 아동들의 지적능력의 개인적차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서 기본은 나이에 따라 작성된 《표준화된 문제》를 놓고 어린이들의 정신나이를 규정하고 그것을 실지 나이로 나눈 상에 100을 곱하여 지능지수를 정하는것이다. 레컨대 어떤 아이가 CA=10살, MA=15살이라면 그의 지능지수는 IQ=150이라는것이다.

지능검사리론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지능상수문제 즉 지능의 항상성이다. 이것은 개체발전의 전기간에 지능발전에서 본질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들이 들고나오는 《표준화된 문제》라는것은 사람들의 지능을 전면적으로 정확히 료해할수 있게 구성되어있지 못하고 극히 일면적이고 단편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이러한 지능검사론의 기초인 지능을 선천적이며 고정불변한것으로 보는 유전학적견해였다.

이것은 골톤을 비롯한 형이상학적인 자연과학자들의 견해를 답습하여 일반생물학의 유전법칙을 절대화하고 사람들의 심리적특성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데서 출발하고있었다.

그후 여러 나라들에서 사람들의 지능수준을 검사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 실험적연구방법들은 자본주의적생산과 부르조아적인간육성을 위한 교육실천의 요구로부터 지능수준을 규정할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를 인간이 타고나는 선천적인 능력에서 찾는데 돌려졌다. 그 당시 검사의 적용과 그에 대한 모든 스크라학적분석방법은 사람들사이의 개인적차이가 전적으로 유전에 의존한다는 반동적인 리론을 립증하는데 복종되고있었다.

지능검사리론은 지능과 그의 발전, 심리발전에 작용하는 사회계급적요인을 부인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과 인민대중의 계급적처지를 외면한 비과학적견해이며 숙명론의 직접적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이 리론은 나아가서 계급적, 민족적차별을 정당화하는데 복무하고있다. 즉 특정한 계층이나 인종, 민족의 우월성과 그에 의한 지배를 주장하는 인종주의사상에 물을 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부르조아지들의 사상적도구로 복무하였다. 여기에 바로 이들의 주장의 비과학성과 반동성이 있다.

그후 검사론은 도이칠란드의 심리학자인 문스터베르그(1863-1916)에 의해 개인적인 검사로부터 집단적인 검사에로 확대되어 대중적성격이 부여되었다. 이것은 주로 당시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을 위한 부르조아지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한 직업선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것이였다.

이로부터 집단적인 심리검사에서는 주로 활동수행과 관련된 특성들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이것도 개인적인 심리검사의 출발적립장과 본질상 다를바 없는것이다.

지능검사론의 제창자들은 사람들의 지적, 정신적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있는 선천적인 능력으로 간주하였으며 교육과 기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밑에서도 본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고정불변한것으로 보는 도식적인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뿐만아니라 검사대상선정과 방법에서도 심리형성발전의 여러 요인들의 작용을 무시하고 주어진 순간에 표현되는 측면들만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기계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관점에 서있었다.

특히 심각한것은 그 연구목적의 비과학성과 반동성에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개성심리연구과정들은 부르조아지의 무제한한 탐욕과 리윤추구를 위한 반동적인 목적달성에 복종되고있다.

지능검사리론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가리우고 피착취근로대중의 불행한 사회계급

적처지를 그들자체의 내적, 심리적요인이나 선천적인 무능에 의한것으로 외곽하며 사람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의 발전을 억제하고 숙명론을 고취하는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인 리론으로 되었다.

인간의 성격과 재능에 대한 반동적인 리론들은 자본주의제도를 합리화하고 유지하려는 부르조아지들의 계급적요구, 리해관계에 부합되었으며 그 이후 부르조아사회에서 널리 류포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개성심리학은 과학화를 표방하며 더욱 성행하였으나 그것은 부르조아지들의 무제한한 탐욕과 자본주의사회의 《합리성》, 《영원성》을 추구하는 자본가계급의 리해관계에 맞게 가공되어 사람들에게 숙명론을 고취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부르조아사회학, 부르조아심리학리론의 주요내용으로 되고 있으며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을 리론적으로 안받침해주고 자본주의제도를 유지 공고화하는데 적극 추종하는 사상적도구로 되고있다.

실마리어 개성, 체액설